

한방피부미용학 개요

채운병, 이승일, 강인정, 이은미

Korean Dermatology and Aesthetics

Yun Byung Chae, Seung Il Lee, In Jung Kang, Eun Mi Lee

ABSTRACT

Oriental cosmetics is based on oriental medical theory. In oriental medicine, skin reflects the condition of internal organ(臟腑) and qi-hyu(氣血).

The oriental dermatology and aesthetics aim at the development of health and beauty using herbal medicine, acupuncture, chuna(推拿), qigong(氣功), and diet. And the oriental dermatology and aesthetics are related the branch of oriental medicine, such as orinetal gynecology and oriental internal medicine.

I. 서론

인간의 미(美)에 대한 추구는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류의 영원한 화두로 남아있다. 피부의 해부학적 구조론 등 외적인 면에 치중해서 발전해 온 서양 의학과 달리 한의학에서는 피부미용을 다름에 있어서 피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체의 생리기능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 왔다. 따라서 한방피부미용학은 피부에 대한 부분적인 치료와 관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각 기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요법과 함께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인체의 각 장부의 생리기능과 병리변화는 서로 연관되어 상호 작용한다는 전제 하에 전신적으로 장부(臟腑), 경락(經絡), 계절, 체질 등 다양한 유발 인자에 의하여 피

부의 상태가 결정되므로 피부는 장부(臟腑), 기혈(氣血)의 정상적인 생리, 병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성제총록(聖濟總錄)에서 기혈순환(氣血循環)이 좋아야 안색(顏色)이 좋아진다고 한 것은 안면이 바로 오장(五臟)과 육부(六腑)의 기능적 표현 부위이기 때문이다. 내면의 건강이 곧 외면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므로, 피부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증진하고 유지하려면 반드시 내면의 균형과 건강을 회복시키는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방피부미용학의 특징이자 치료 원칙이기도 하다.

한방피부미용학은 전통적인 한의학 이론과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으로 한약, 침구, 추나, 기공, 식이요법 등의 예방의학인 한의학의 특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형과 외모의 건강함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한의학 임상분야의 하나로서 한방부인과, 한방내과, 한방외과 등의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에 저자는 한방화장품 개발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한방피부미용학에 관하여 연구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본 론

1. 한방피부미용학의 개요

한방피부미용학의 특징은 각 개인의 체질과 피부상태의 차이를 인식하고 인체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여드름이나 기미, 아토피 피부염 등 피부질환에 있어서 피부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하여 내부적으로는 전신적인 증상을 치료하고, 외부적으로는 피부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치(內治)와 외치(外治)에 역점을 두고 있다.

1) 철학적 배경

(1) 천인합일(天人合一), 자연주의

『소문·음양응상대론(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라 하여 자연 만물의 발생, 발전, 변화 등은 음양의 상대성, 통일성, 전화성 등의 결과라고 하였다. 금(金), 목(木), 수(水), 화(火), 토(土)의 오행 사이의 상생작용과 상극작용으로 자연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음양의 소장(消長)과 전화(轉化)와 오행의 상생과 상극은 가장 기본적인 자연의 법칙이고 밤과 낮의 길이변화, 사계절의 변화, 달의 차고 이그러짐, 생명활

동 등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

천인합일은 사람과 자연이 하나라는 정체관념인데, 인체의 신진대사와 장부의 기능과 기운의 승강과 기혈의 운행은 음양의 소장과 전화,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제화 기능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대자연과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2) 형신협조(形神協調)

형(形)은 인체 장부(臟腑) 등의 유형의 물체이고, 신(神)은 감정의 활동과 정신상태 등을 말한다. 사람은 장부가 건강해야할 뿐 만 아니라, 적절한 감정의 조절과 원활한 정신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형신합일(形神合一)은 한방피부미용에서 추구하는 가장 높은 경지에 해당한다. 동양은 전통적으로 정신을 중시하고 외형을 소홀히 하는 영향으로 인해, 한방피부미용에서는 감정을 조절하고 인품을 배양하고 평온한 정신상태를 매우 중시하였다.

정신의 온전한 상태와 감정의 적절한 조절은 내장 기운의 승강 출입을 순조롭게 하여 신체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형과 신을 보존시켜 형신합일을 통한 피부미용을 이룬다. 따라서 한방피부미용에서는 형과 신을 함께 조양해야 한다.

2) 피부미용과 기혈진액(氣血津液)

기혈진액은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이고 피부미용의 물질적인 기초가 된다.

(1) 기(氣)와 피부미용

기는 폐와 비와 신의 종합적인 작용으로 선천지기와 수곡지기가 자연의 청기(淸氣)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한다.

① 추동(推動) 작용

기는 혈의 스승으로 혈액은 기로 인하여 소통되어 심장에서 피부, 모발, 오관, 손톱에 이르는데, 제때에 기혈의 영양을 받고 신진대사가 잘 소통되면, 피부가 윤택하고 매끄럽고 모발이 빛나고 윤기가 있고 두 눈은 맑고 충기가 있으며 오관은 정상적이다. 기체(氣滯)하거나 기허(氣虛)하여 추동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혈액이 어체(瘀滯)가 되어 안색이 어둡고 침침하고 피부가 건조하고 만성습진이 있고 모발이 빠지고 윤기가 없는 등 얼굴의 피부미용에 손상을 주는 변화가 나타난다.

② 온후(溫煦) 작용

기의 온후 작용은 얼굴과 머리와 오관 및 사지가 한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장한다. 한랭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기혈, 진액이 정상적이라면 피부는 따뜻하고 윤택하고 활력이 있으며 사지는 따뜻하다.

만일 기가 허하여 오후 작용을 잃게 되면, 귀, 손, 얼굴, 피부 등이 한랭에 견디지 못하고 동상이 나타나고 한랭성 담마진과 한랭성 다형성 홍반이 나타나고 수족이 따듯하지 않으며 피부색이 창백하고 정신이 침체되게 나타난다. 만일 기가 멎쳐서 흠어지지 않아 울체되어 열화 되면 창양, 옹종이 나타나고 입과 혀에 창이 나고 입에 냄새가 나고 가슴이 답답하여 오래 잠을 자지 못하게 된다.

③ 방어(防禦) 작용

피부의 외부에 대한 저항력이 주로 기의 방어 작용에 해당하는데, 피부에 손상을 주는 병변은 기의 방어기능이 저하되어 외사가 침범하여 나타난다. 반복되는 피부감염과 피부과민 등의 피부질환의 발병여부와 발병 후의 인체의 반응과 질병의 예후 등은 모두 기의 방어기능의 강약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④ 고섭(固攝) 작용

피부의 중량의 70%는 수분이고 이는 피부가 탄력이 있고 주름을 방지하는 근간이 된다. 피부가 함유하는 풍부한 혈액은 피부 영양의 근원이 된다. 피부가 수분을 함유하고 혈액이 맥관 외로 나오지 않는 것은 기의 고섭 작용에 의한 것이다.

만약에 기가 허하여서 고섭 작용을 하지 못하면 땀이 대량 흐르고 피부가 건조하거나 축축하여 감염이 되거나 피하에 출혈이 생긴다.

⑤ 기화(氣化) 작용

기화는 기의 운동을 통하여 정(精)과 기와 혈액과 진액의 상호 전화하는 신진대사작용을 말하는데, 기가 허하거나 기가 체하면 기화 작용의 실조를 초래하여 대사에 장애가 발생하고 그 중에 수액대사의 장애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기화가 잘 되지 않으면 수습이 안에 정체되고 피부가 희고 윤택하지 않고 얼굴과 눈 부위가 부종이 생겨 붓고 모근이 점차 성글어져서 탈락되고 몸이 비대해지고 머리는 혼탁하고 백대하가 많고 생리가 규칙적이지 못하게 된다.

(2) 혈(血)과 피부미용

『성제총록(聖濟總錄)』에서 ‘血氣者 人之神. 又心者, 生之本, 神之變, 其華在面, 其充在血脈, 服藥以駐顏色, 當以益血氣爲先’이라 하여 혈과 심장, 두면부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논하였다.

두면 부위는 혈관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피부가 얇아 모발이 무성하고 얼굴색이 붉고 윤택하게 된다.

혈허(血虛) 하면 안색이 누렇게 되고 입술 색이 옅고 수족이 뻣뻣해지고 머리카락이 성글어지고 누렇게 되며 약하게 되고 피부는 건조해지며 가려워진다.

혈어(血瘀) 하면 피부색이 어둡고 색소가 침착하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빠진다.

혈열(血熱) 하면 피부가 붉게 되고 기름지고 뽀드락지가 나고 피하에 출혈이 보이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못 이루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혈조(血燥)는 혈허 혹은 열병이 오래되어 음혈을 손상하여 건조하게 된 것인데,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고 인설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비후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혈은 신(神)을 기르는데, 형(形)과 신(神)을 함께 중시하는데 있어서 혈의 영양작용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혈허하면 신을 기르지 못하여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이루고 건망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혈열하여 신을 동하게 만들면 가슴이 답답하고 조급하며 잠을 못 이루고 꿈을 많이 꾀다.

(3) 진액(津液)과 피부미용

진액은 피부를 자윤(滋潤)하여 피부색을 투명하게 하고 탄력이 있게 하고 주름이 쉽게 생기지 않게 하고 관절운동을 원활하게 한다. 진액이 흡수되어 음액이 상하면 자윤 작용을 잘 하지 못하여 피부가 건조하고 인설이 일고 가렵고 갈라지고 잔주름이 생기고 입술이 마르고 트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피부의 수분 부족이 장기간 나타나는 것은 피부 노화의 주요원인이 된다.

진액대사의 소통은 진액의 자윤 작용과 마찬가지로 피부에 중요한데, 진액의 기화가 잘 되지 않으면 진액이 머물러 결절성 홍반, 습진, 낭종, 좌창, 얼굴과 눈의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3) 피부미용과 오장(五臟)

인체는 오장을 중심으로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오장은 안으로 육부와 혈맥으로 연계되고 밖으로 오관과 연계되어 생명 조절의 중심이며 기혈을 생성하는 근원이 된다. 피부미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체형과 용모는 오장 기능의 외적인 표현이고, 오장은 신체의 오관을 자양하고, 오관은 오장의 기능을 반영한다.

한의학에서는 “心, 其華在面, 其充在血脈, 皆竅於舌; 肺, 其華在毛, 其充在皮, 皆竅於鼻; 脾, 其華在脣, 其充在肌, 皆竅於口; 肝, 其華在爪, 其充在筋, 皆竅於目; 腎, 其華在髮, 其充在骨, 皆竅於耳及前後二陰” 이라 하여 오장과 오관과의 표본관계를 설명하였다. 오장 기능의 강함은 사람을 장수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의 체형과 용모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한다. 오장 기능의 저하는 사람을 쉽게 병들고 수명을 단축시킬 뿐 만 아니라 사람의 체형과 용모의 아름다움을 잃게 만든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피부미용의 문제는 건강과 질병, 오장의 조화와 실조의 문제이다. 오장은 “有諸內”의 본(本)이 되고, 오관은 “形諸外”의 표(標)가 된다.

한방피부미용은 標를 보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本을 더욱 중시하여 내부의 기능을 조양하고 치료하면 외부의 아름다움을 저절로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체형과 피부미용에 건강과 아름다움에 있어서 오장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보심비(補心脾)하여 정신을 기르고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건비위(健脾胃)하여 근육을 키우고 체형을 가꾸고, 양간신(養肝腎)하여 눈을 밝게 하고 머리카락을 검게 하고, 이폐위(理肺胃)하여 피부병을 없애고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보비신(補脾腎)하여 아름다움을 증진하고 저항력을 키우는 등의 여러 가지 피부미용방법 모두 오장의 관점에서 치료하는 것이다.

(1) 심(心)과 피부미용

심과 피부미용의 관계는 주로 주혈맥(主血脈)하고 주신(主神)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표현된다. 『영추사기장부병형(靈樞邪氣臟腑病形)』에서 “十二經脈 三百六十五絡, 其血氣皆上於面而走空竅” 라고 하여 심은 혈맥을 주관하고 혈액의 운행을 추동시키는데, 얼굴에는 혈맥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피부가 얇아서 얼굴의 명암과 윤택도는 심이 혈맥을 주관하는 정도를 반영한다. 이는 “其華在面”의 의의와 관련된다. 건강한 사람의 혈색을 붉으면서 윤택한데, 붉은 것은 혈액이 가득한 것을 말하고, 윤택한 것은 혈액이 잘 소통되는 것을 말하며, 누런 가운데 붉거나 하얀 가운데 붉거나 검은 가운데 붉다. 심혈(心血)이 부족하면 안색이 영화롭지 못하고, 심기(心氣)가 부족하면 안색이 하얗고, 심혈에 어혈이 있으면 얼굴색이 어둡고, 심화열성(心火熱盛)하면 얼굴이 붉고 창양이 쉽게 발생한다.

(2) 폐(肺)와 피부미용

폐는 피부를 주관하고 피부는 폐로부터 영양을 받는다. 폐는 선발(宣發)을 주관하는데, 하나는 위기(衛氣)를 선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액을 선발하는 것이다. 위기는 비위에서부터 나와서 폐의 선발 작용을 통하여 피부에 골고루 퍼져서 기능을 발휘하는데, 『영추본장(靈樞本臟)』 편에서 “衛氣者, 所以溫分肉, 充皮膚, 肥腠理, 司開閤者也”라 하고, “衛氣和則分肉解利, 皮膚調柔, 腠理緻密矣.” 라고 하여 위기(衛氣)가 기표(肌表)와 피부사이에 순행하여 빠르게 움직여서 기육과 피부를 따뜻하게 하고 땀구멍을 조절하고 외사를 방어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부의 대부분의 기능은 위기의 기능이며, 위기의 기능이 피부미용의 선결조건이 된다. 폐기가 부족하거나 혹은 폐기가 울폐(鬱閉)되면 폐기가 선발 작용을 못 하여 위기를 허약하게 하거나 위양(衛陽)을 울체되게 하여 피부가 기능을 잃어 피부가 따뜻하지 않게 되고 동상이 쉽게 발생하며, 땀 배출에 이상이 생기고 피부의 저항력이 저하되어 외부 감염이 재발되기 쉽고, 풍사(風邪)로 인하여

소양증과 과민반응이 잘 나타나면서 피부가 건조해진다. 위양이 울체되어 열화(熱化)되면 반(斑), 진(疹), 창(瘡), 양(瘍) 등의 피부질환이 발생한다.

(3) 비(脾)와 피부미용

비는 후천의 근본이고 생화의 근원이 되어 오장육부와 전신의 건강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체형의 비만도와 기육의 튼실도와 피부의 탄력도와 얼굴색과 입술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비기가 수습(水濕) 운화(運化)를 잘 하여 기혈이 생화하는 근원이 되고 장부가 튼튼해지는 것이 체형과 용모의 기본이 되어, 적당한 체중과 튼튼한 기육과 팔다리에 힘이 있고 피부가 탄력이 있고 얼굴에 광택이 있고 입술이 붉고 윤택하게 나타난다. 오랜 기간 동안 비위의 기능이 잘 못되면 피부에 손상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비위의 적체가 열화되면, 피부가 기름기가 흐르고 거칠어지고 체형이 비만해지고 변비가 있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부스럼증과 주사비와 피부과민이 생기고, 비위가 허약하면 생화의 근원이 부족하여져 피부가 건조해지고 안색이 누렇게 되고 정신이 피로하고 팔다리에 힘이 없고 피부가 이완되어 늘어지고 입술색이 얼어진다.

비는 수습(水濕)을 운화하여 수액대사에 관여하게 된다. 수액대사가 잘 되어 충분한 수액이 공급되면 피부가 충실하게 되며, 피부는 수분의 부족과 정체에 대해 모두 민감하게 나타난다.

(4) 간(肝)과 피부미용

간은 칠정(七情), 생리, 손톱, 눈, 근육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 간은 감정을 소설(疏泄)하는 기능을 주관한다. 감정의 분출은 자신의 감정을 평온하게 하고 정신상태의 안정을 가져오며 눈의 인상을 좋게 한다. 간기(肝氣)가 울결하여 감정이 잘 펼쳐지지 못하게 되면 사람을 즐겁지 못하게 하여 얼굴을 쩡그리게 하고 답답하고 조급하여 쉽게 화를 내게 된다. 간은 혈을 간직하여 혈량을 조절하고 양측 눈과 손톱과 인대 등의 영양을 공급하며 생리의 조절에 관여한다. 간혈이 충분하면 두 눈이 밝고 물체를 또렷하게 볼 수 있으며 손톱이 붉고 윤택하며 관절의 활동이 부드럽고 동작이 민첩해진다. 간혈(肝血)이 부족해지면 얼굴색이 하얗고 눈이 건조하고 충기가 없으며 눈앞에 어른거리고 손톱이 건조하고 쉽게 부러진다고 신체가 노화하여 관절이 부드럽지 못하고 동작이 느릿느릿해진다. 간기가 때가 되면 소설되어 혈해(血海)가 잘 풀어져서 충임맥이 잘 통하면 생리가 정상적으로 나오게 된다. 만약 간기의 소설작용이 잘못되면 월경이 조절이 잘 안되어 생리 전후에 가슴이 답답하고 뽀로지가 나고 기미가 생기는 등 피부에 문제가 발생한다.

(5) 신(腎)과 피부미용

신은 정(精)을 간직하며 선천의 근본이 되고 수명의 근간이 된다. 신(腎) 중의 정기의 소장성쇠는 인체의 생로병사의 내재된 요소가 된다.

아동기에는 매우 활발하고 청소년기에는 정열적이고 중년기에는 무게감이 있고 노년기에는 평온한 등의 각 연령에 특성에 맞는 생명미가 있는데, 이는 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신(腎) 중의 정기의 감쇠에 따라 오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또한 생리적 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허리가 굽고 활동이 둔해지고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생기며 피부색이 어두워지고 광택이 줄어들고 머리카락이 희고 성글어져서 빠지고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며 눈앞이 어지럽고 청력이 감퇴되고 기억력이 저하되어 인체의 외적인 아름다움이 상실된다. 이러한 생명의 노화의 근본은 신에 있다. 심, 비, 간, 폐 등의 다른 장부의 병변은 피부에 손상을 주는 변화를 일으키더라도, 적시에 치료와 조양을 하게 되면 회복이 되지만, 노화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규율로서 발생하게 되면 이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올바른 생활습관과 합리적인 음식섭취와 적당한 형과 신의 조양 등의 후천의 보건과 양생을 통하여 후천으로 선천을 기르고 신정의 노화의 정도를 늦춰주고 피부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피부미용과 경락

경락은 전신에 분포되어 장부와 근골과 피부를 하나로 연결하여 인체의 정체성의 물질적인 기초가 되고 기혈 운행의 통로가 된다. 경락의 연결을 통하여 한방피부미용에서 인체 상부의 질환을 아래에서 다스리고, 인체 외부의 질환을 내부에서 조절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피부미용은 기혈을 근본으로 하여 기혈을 조절하는데, 약물과 추나와 기공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락을 소통하는 것은 매우 주요한 부분이 된다.

기혈과 진액은 위로 피부와 두면과 오관과 모발 등의 피부미용과 관련된 기관에 영양을 공급하는데, 경락이 그 통로가 된다. 『영추사기장부병형편(靈樞邪氣臟腑病形)』에서 “十二經脈, 三百六十五絡皆上於面而走空竅. 其精陽氣上走於目而爲睛, 其別氣走於耳而爲聽, 其宗氣上出於鼻而爲臭, 其濁氣出於胃, 走脣舌而爲味. 其氣之津液皆上熏於面.....” 이라 하여 경락을 침구와 안마를 통하여 기혈을 조절하고, 또한 경락의 조절작용은 피부와 두면과 오관과 모발에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경락이 잘 통해야 유양작용과 보익작용과 보습작용과 신진대사를 논할 수 있고 각종 다른 피부미용방법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락은 한방피부미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정상생리 상태에서는 경락과 연계를 통하여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며 모발에 영양을 준다. 많은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은 경락의 조절을 통하여 치료할 수 있다.

5) 피부미용과 외부 환경 (육음(六淫))

외부 환경인자인 풍, 한, 서, 습, 조, 화(風寒暑濕燥火)의 육음(六淫)은 주로 두면 부위와 피부에 피부미용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두면 부위는 외부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서 바람과 추위, 더위 등의 외부조건에 변화를 견뎌내야 한다.

피부는 인체의 장벽으로 육음이 사람을 손상시키는 데 있어서 피부가 제일 먼저 방어하는 부위가 된다. 육음이 일단 침범하게 되면 피부의 노화를 야기하는데, 특히 흑한, 흑서, 건조, 강한 태양광선 등은 피부에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피부의 생리적 노화현상은 우리가 사는 환경 중의 육음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육음은 피부 노화현상의 외인으로 작용하여 직접적으로 각종 피부질환과 오관질환을 야기하거나 질병을 악화시킨다.

① 풍사(風邪)

육음 가운데 피부미용에 가장 영향을 심하게 미치는 것은 풍사(風邪)다. 풍사는 수시로 잘 변하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며 위로 승발하고, 위로 밖으로 향하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풍사는 피부와 두면, 오관 부위를 손상하기 쉬어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기혈이 조화되지 않게 되고, 진액이 잘 공급되지 못하여 소양증, 탈설, 건조증, 붉게 변하는 등의 피부손상이 나타난다.

내생된 풍 즉 내풍(內風)은 주로 음허(陰虛), 혈허(血虛), 혈어(血瘀) 등으로 인해 조증(燥症)이 나타나는데, 병의 발현은 비교적 가볍고 오래 된다. 극렬한 소양증, 피부의 건조 및 비후, 색이 어두워지고 탈설되고, 모발이 건조해서 쉽게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풍은 모든 병의 우두머리가 되어, 다른 외사가 풍사에 더불어서 인체에 침입한다. 따라서 피부미용의 처방 중에 천궁, 방풍, 고본, 백강잠, 만형자 등의 거풍약(祛風藥)이 주로 사용되어, 거풍은 한방피부미용 치료에 주된 치료 원칙이 된다.

② 한사(寒邪)

한사(寒邪)는 음사(陰邪)로서 인체를 수축시키고 양기를 손상시키기 쉬운 특성이 있다. 두면은 “諸陽之會”가 되어 한사가 쉽게 손상시키는 부위가 된다.

겨울에는 정상 생리적으로 피부의 주리가 치밀하게 되고, 혈관이 수축하며 한선 활동이 감소되고 양기는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피부의 진액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 기후가 한랭해지면 수분이 감소되어 종종 피부가 어두워지고 건조해지고 서늘해지게 된다. 한랭의 정도가 지나치거나 장기간 노출되면,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건조하면서 차가우면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며 가렵고 껍질이 벗겨지며 갈라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 습하면서 차가우면, 피부혈관 운동의 장애가 생기고, 순환이 잘 되지 않아 정체되면, 동상, 동창, 한랭성 홍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겨울에는 피부를 따뜻하게 하고, 수분과 습기를 보호할 뿐 아니라, 피부를 상쾌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내한(內寒)은 주로 비(脾)와 신(腎)의 양기가 허해져서 발생하는 것인데, 인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이 저하되어, 안색이 창백하고 마음이 침체되어 있으며 부종이 발생하고, 추위를 잘 타며 성기능이 저하되어 모발이 쉽게 빠지고 수염 등이 잘 자라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③ 서사(暑邪)

서사(暑邪)는 여름을 주관하며, 성질이 뜨겁고 더워서 주리를 열어 진액(津液)과 기(氣)를 손상시킨다. 또한 주로 습사를 함께 동반하여 서습(暑濕)의 질환을 발생시킨다.

서사는 땀을 줄줄 흐르게 하여 진액과 기를 손상시키는데, 만약 제때에 수분을 보충시키지 못 한다면, 피부의 수분을 잃게 하여 건조해진다. 또한 제때에 땀을 배출하여 소설시키지 않으면, 더위와 습한 기운이 인체를 찌서 피부에 더욱 부담이 가해져서 땀이 끊임없이 흐르고, 피부에 수분함량이 증가되어, 손과 발에 침윤되어 피부가 문드러지고, 땀띠가 나고, 모낭염, 황수창(黃水瘡), 서열창(暑熱瘡) 등의 여러 피부의 선병(癬病)이 발생하게 된다.

여름철의 심한 혹서는 특히 중년 여성에게 피부의 손상을 더욱 심하게 만든다. 태양광선에 노출되어 생기는 거뭇거뭇한 검은 반점이 생기고, 한편으로는 태양광선의 자외선이 피부의 탄력섬유를 손상시켜 탄력을 떨어뜨리며, 피부를 성글게 만들어서 주름살이 늘어나게 만드는 등 태양광선은 피부노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④ 습사(濕邪)

습사(濕邪)는 장마철의 주된 기운으로, 여름과 가을의 사이에 양열(陽熱)의 기운이 하강하고, 수기(水氣)가 위로 증발되는 가운데 습열(濕熱)이 온증되어 피부의 부담이 증가되어 더럽고 탁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얼굴에 때가 많이 끼고 눈썹이 자주 끼며 피부가 끈적끈적하고 상쾌하지 못

하며, 습진, 대상포진, 지루성피부염, 좌창, 농포창, 악취, 수선, 족선, 체선, 고선 등이 발생하고, 병정은 오래가며 쉽게 재발한다.

비(脾)가 수습을 운화하는 기능을 잃게 되면, 체내에서 습이 발생하여 담습이 정체하여 비만하게 만들고, 정신이 어두워지고 기면 상태로 만들고, 코를 잘 골게 만들고, 황갈반 등이 발생하게 만든다. 습사가 울체되어 열화되어 위로 증하게 되면, 피부가 기름지고 미끄럽게 되어, 황갈반이나 좌창 등이 쉽게 발생하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치아가 청결하지 못하게 된다.

⑤ 조사(燥邪)

조사(燥邪)는 가을의 기운에 해당하여 폐(肺)와 통한다. 폐는 피모를 주관하고 코에 개구(開竅)하는데, 조사가 병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피모와 오관의 유양하는 작용이 실조된다. 『소문·현기병원식(素問·玄機原病式)』에서는 “諸澁枯涸乾勁皺揭, 皆屬於燥”라 하여, 외조(外燥)의 경우 코와 입, 인후를 건조하고 목을 마르게 하고, 피부를 건조하고 갈라지고 거칠게 하고, 피부가 많이 벗겨지고 모발이 타서 마르게 된다.

내조(內燥)는 폐위음허(肺胃陰虛) 혹은 간신음허(肝腎陰虛) 혹은 혈관, 기육, 피모의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여 기육이 마르고, 입과 인후가 건조하고 피부가 마르고 거칠하고 광택이 없게 되고 모발이 고갈되고, 소변이 짧고 적어지고 대변이 건조하고, 마음이 번조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안구가 건조하고 눈이 뻑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⑥ 화사(火邪)

화사(火邪)는 양(陽)이 성한 것으로 인해 나타나는데, 외부에서 각종 온열의 사기가 들어와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내부의 장부의 기혈의 부조화, 칠정의 과민, 신랄하고 기름지고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한 경우 혹은 본디 양(陽)이 성하여 내생하는 경우도 있다. 화사는 모두 위로 타오르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두면부에 피부변화를 잘 일으키고 혹은 화농성 피부 병변의 주요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화사가 안면을 침범하여 단독, 구순포진이 나타나고, 폐위(肺胃)의 열이 오래되어 위로 증하여 좌창, 주사비, 지루성 피부염이 나타나고, 간신(肝腎)이 음허하여 화가 성하여 작반, 황갈반 등이 나타나고, 간(肝)이 울결하여 화로 변한 경우 편평사마귀 등이 나타나고, 비위(脾胃)의 적열은 체형이 건장한 경우에 나타나며 입 냄새가 나고, 구창, 궤양이 자주 나타나고, 대변이 잘 나오고, 소변이 짧고, 피부에 기름기가 많고 피부가 거친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화열이 피부에 맺힌 것은 화농성 피부병, 붉고 붓고 열이 나고 아픈 등 염증 증

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6) 피부미용과 감정

적절한 감정의 조절과 기쁨, 행복, 흥분, 느슨함 등의 좋은 감정은 간기(肝氣)를 부드럽게 펼 수 있고 비위를 튼튼하게 할 수 있고 오장의 균형을 이루고 기혈을 잘 소통시켜서 얼굴에 생기가 있고 안색이 밍그레하게 윤택이 있고 정신 상태를 편안하게 한다.

그러나 과도한 감정의 변화, 슬픔, 억울, 분노, 놀람, 두려움, 긴장, 걱정 등의 나쁜 감정 등은 심신(心神)을 손상하는데, 이는 『영추구문(靈樞口問)』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된 것을 볼 수 있다. “心者, 五臟六腑之大主也,故悲哀憂愁則心動, 心動則五臟六腑皆搖.”

노하면 간을 손상하고, 걱정하면 폐를 손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비를 손상하고, 두려움은 신을 손상한다. 지나친 기쁨은 심을 손상하여 사람을 계속해서 웃게 만들어 심기가 흩어져서 정신이 황홀해진다.

감정의 억눌림은 간을 상하게 하여 황갈반, 좌창 등이 나타나고, 슬프고 걱정되는 것은 비와 폐를 손상하여 안색이 하얗게 되고, 잘 슬피하고 울게 되고, 몸이 약하고 병이 잦아진다. 생각이 많아지면 심비의 혈이 허해지고 안색이 누렇게 되고, 입술과 손톱 등이 얼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억력이 저하된다.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하고 욕심이 그치지 않는 경우는 간신을 손상하게 되는데, 몸에 힘이 없고 허리 무릎이 쭈시고 약하고, 성기능이 저하되고 모습이 초췌하고 모발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피부미용에 손상을 주는 질병의 발생과 진행 과정에서 감정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탈모, 신경성 피부염, 담마진, 황갈반, 좌창, 주사비, 습진, 백전풍, 비만, 체중감소 등은 모두 감정이 좋지 않은 데서 발생된다.

III. 결 론

한방화장품이란 화학·광물성 원료를 배제한 천연 한약재의 복합처방으로 한국적 감성과 한의학의 이론적 바탕 위에 기(氣)와 혈(血)의 흐름을 원활하게 촉진시켜 피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피부의 생리 기능을 활성화시켜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한의학에서 피부는 기혈진액, 오장육부, 칠정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피

부질환에 있어서 피부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하여 내부적으로는 전신적인 증상을 치료하고, 외부적으로는 피부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치(內治)와 외치(外治)에 역점을 두고 있다.

IV. 참고 문헌

- 편집위원회, 한방피부미용학개론,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2003.
- 강학회, 한의학과 화장품의,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제3차 워크샵 자료집, 2003.
- 김주덕, NT·BT 등이 집약된 고기능성 화장품 개발 연구, 산업자문부 신산업분과 위원회(화장품, 향기), 2001.
- 대한화장품공업협회, 화장품 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 2002.
- 보건복지부, '2003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공고', 2003.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 21세기 화장품 산업 특화와 지원·육성을 위한 국산 한방화장품 신제품 개발 및 수출 전략화, 2003.
- _____, 21세기 화장품 산업 특화와 지원·육성을 위한 화장품 정책 종합설명회, 2003.
- 안덕균, 한방미용의 전망,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제1차 워크샵 자료집, 2002.
- 안덕균, 피부미용의 한의학적 이론,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정기총회 및 여드름세미나 자료집, 2002.
- 안덕균, 피부미용의 약물요법,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제4차 워크샵 자료집, 2003.
- 안덕균, 피부치료에 상용하는 본초와 방제,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광주·전라지부 창립 총회 및 제5차 워크샵 자료집, 2003.
- 이은미, 한방화장품의 활용, 제1차 대한한방피부미용사협회 창립총회 및 워크샵, 2002.
- 김혜향, 피부미용에 사용 가능한 한방약재와 그 효과에 대한 고찰,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노영호, 한방자원의 생명·정보기술 사업화 동향에 대한 연구, 경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 11.
- 오혜진, 인삼 성분을 함유한 화장료의 특허 동향, 특허청, 2003